

아침을 깨우는 천원의 아침밥

조식 이용자 2배 이상 '굉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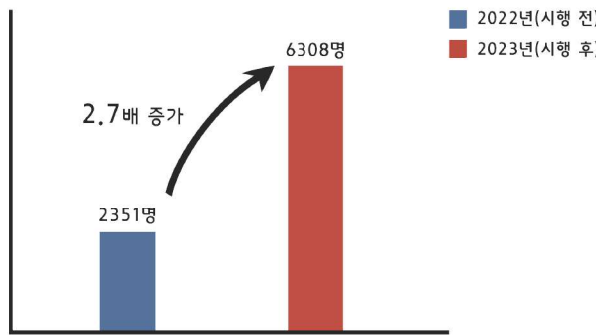
GIST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 시행하는 '2023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돼 3월 29일부터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하고 있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 식사(쌀 또는 쌀 가공식품)를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젊은 층의 아침 식사 습관화와 쌀 소비문화 확산을 농식품부와 대학이 함께 지원하고자 2017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본래 GIST 학생 식당이 조식 가격은 5,600원으로 학교와 학생이 조식 가격을 각각 2,800원씩 부담하는 구조였다. 천원의 아침밥이 시행되는 동안에는 정부지원금 1,000원, 학교 부담금 3,600원, 학생 부담금 1,000원으로 조식이 운영된다.

천원의 아침밥 이용 방법

천원의 아침밥은 식당 조식 운영시간인 오전 8시~9시 사이에 제1학생회관 1층 식당과 제2학생회관 1층 식당에서 학생증을 기기에 태그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일일 제한 인원은 없다. 메뉴는 요일별로 다양하게 차려진다.

천원의 아침밥 전후 조식 이용자 수 비교 (연도별 이용자 수 조사기간: 3월 29일 - 4월 30일)



삽화 = 김수경 수습기자

2학 1층 카페는 적용 대상 제외

제2학생회관 1층 식당에 있는 카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농정원에서 천원의 아침밥을 시작한 주요 취지 중 하나가 우리나라 쌀 소비 촉진이기 때문입니다. 제2학생회관 1층 식당 카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대상이 아님을 5월 16일 학생팀으로부터 정확히 안내받았고, 학생들에게 사전 안내 후 5월 22일부터 조식 토스트 가격을 기존 2,800원으로 변경했다.

천원의 아침밥 이용 실적

지난 3월 29일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시작되고, 조식 이용자 수는 큰 폭으

로 늘어났다. 2023년 4월 조식 이용자 수는 5,635명으로 2022년 4월 대비 약 2.75배 증가했다. 학교 측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매우 고무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학생팀은 조식 이용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천원의 아침밥이 예산 부족으로 예정보다 빨리 종료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해당 사업에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2천 3백만 원 상당의 금액과 학교 측에서 조식 지원 사업을 보조하고 있는 6천만 원 규모의 예산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GIST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속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학생팀은 2024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와 관련해 "농정원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 선정 학교 수 제한에 따른 GIST의 재신청 가능성, 선정 학교 수 제한, 예산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다.

아침밥을 먹는 것은 건강에 좋은 습관이다. 이와 관련해 2학 1층 식당에서 근무하는 최수지 영양사는 "공부하기 위해서는 뇌를 움직여야 하는데, 영양학적으로 뇌를 움직이는 에너지원은 탄수화물뿐이다. 따라서 아침 식사를 통해 뇌에 탄수화물을 공급하면 그날 하루의 공부나 컨디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최 영양사는 "천원의 아침밥 시행 이전부터 학교에서는 조식을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다. 우리 학교의 조식 구성과 맛 또한 상당히 뛰어난 편이므로 학생들이 저렴하고 질 좋은 아침 식사를 많이 이용하면 좋겠다"라고 소망했다.

끝으로, 학생팀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통해 아침 식사 결식률과 경제적 부담을 낮춤으로써 우리 학교 학생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김현균 수습기자
hyeongyunkim@gm.gist.ac.kr

늘어지는 총장 선임

지난 4월 5일, GIST 제9대 총장 선임을 위한 이사회가 개최됐으나 과반수 득표 기준을 충족한 후보가 없어 부결됐다.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는 재공모와 각종 심사를 거쳐 총장 후보자를 3인으로 압축했으며 이사회를 거쳐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지스트신문>은 GIST 이사회 사무국(이하 사무국) 이승재 팀장과 유상훈 선생님을 만나 선임 총장 절차와 총장 공백 장기화에 대해 물었다.

총장 선임은 광주과학기술원 정관에 따라 진행된다. 먼저 총추위가 소집돼 서류전형과 대면전형을 통해 최

종후보자를 선정한다. 이때 총추위는 ▲이사회 선출 이사 2인 ▲이사장 지명 외부 인사 1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당연직 이사 1인 ▲전체교수회의 추천 교수 1인으로 구성된다. 이어 최종후보자에 대한 정부의 인사 검증이 진행된다. 정부 인사 검증, 최종후보자의 소견 발표(필요시) 등을 토대로 이사회에서 출석 인원 과반의 동의를 얻은 후보가 총장으로 선임된다. 선임 총장은 과기부 장관의 승인 및 교육부 장관 동의를 얻어 임기를 시작하게 되며, 승인은 보통 이사회 당일 또는 다음날 이뤄진다.

새 총장, 이르면 6월 말 선임

신임 총장의 임기는 빠르면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진행된 재공모에 내부 인사 2명을 포함해 총 9명이 지원했다. 총추위는 5월 16일과 23일에 각각 서류 전형, 대면전형을 거쳐 최종후보자 3인을 선정했다. 최종후보자에 내부 인사로는 문승현 전 GIST 총장, 외부 인사로는 박연욱 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총장과 임기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이 포함됐다. 지난 공모 당시 인사 검증부터 이사회 표결

까지 한 달 정도 소요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늦어도 7월에는 신임 총장이 취임할 예정이다.

사무국은 "재차 부결될 가능성은 일절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며 총장 선임에 대한 큰 기대를 드러냈다. 이번 공모에서는 선임 부결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후보발굴과 모집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초기 공모(10명)와 유사한 지원율을 달성했으며 선임 일정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기획

대학생활관 쓰레기통 문제, 해결 방안은?

GIST 대학생활관 거주 학생 일부는 대학생활관 쓰레기통 문제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하우스연합회(이하 하우스)는 쓰레기통 2 OUT 제도(이하 2 OUT 제도)를 도입했으나, 완전한 해결은 어려운 실정이다. 쓰레기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 자치회와 함께 거주 학생 모두에게 변화가 필요하다.

대학생활관(G, I, S, T 하우스)에는 총 4개 건물(일반쓰레기, 플라스틱류, 캔/병류, 종이류)로 총 4개의 쓰레기통이 갖춰져 있다. 하우스에서는 2022년 2학기부터 쓰레기통 정결을 위해 2 OUT 제도를 시행 중이다. 2 OUT 제도는 매주 층별 쓰레기통을 검사해 OUT이 2번 누적되면 다음 주말 동안 쓰레기통을 제거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쓰레기통 이용 관련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쓰레기통 이용 시 불편 사항

(지스트신문)은 5월 15일부터 5월 18일까지 대학생활관 거주 학생을 대상으로 쓰레기통 이용에 관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전체 응답자는 총 114명이며, 본 조사의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8.50%p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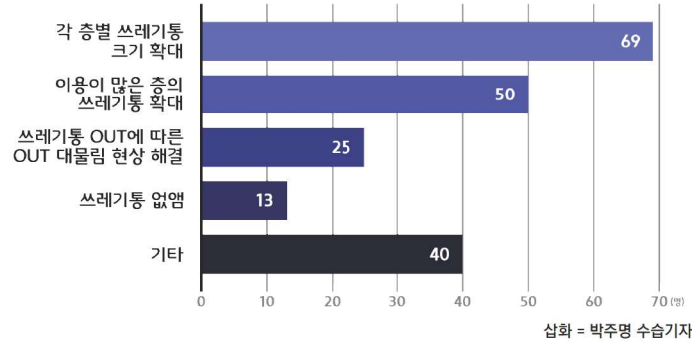
설문 결과, 쓰레기통 이용 시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는 '쓰레기통 공간 부족(76.3%)'이 꼽혔다. 이어서 ▲바다 쓰레기 관리 안 됨(26.3%) ▲악취(21.1%) ▲분리수거 안 됨(19.3%) ▲없음(14.9%) 순으로 불편 사항이 나타났다. 이외에 ▲벌레 발생 가능성 ▲일반쓰레기통의 크기가 작음 ▲배달 음식 용기를 층별 쓰레기통에 버림 등 다양한 불편이 있었다.

2 OUT 제도, 효과적인가?

2 OUT 제도가 쓰레기통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57.9%,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42.1%로 나타났다. 응답자는 2 OUT 제도가 효과적

대학생활관 쓰레기통 제도 개선에 대한 설문

(대학생활관 거주자 중 총 114명 응답, 복수응답)



하지 않은 이유로 ▲쓰레기통 넘침 문제 해결 안 됨(92.4%) ▲분리수거 잘 안됨(31.8%) ▲악취 문제 해결 안 됨(25.8%) 등을 제시했다. 그밖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함”, “공용 층의 경우 예외가 적용되어야 함” 등의 답변이 있었다.

쓰레기통 이용과 2 OUT 제도에서 개선할 점에 대해 응답자의 60.5%가 “쓰레기통 크기 확대”라고 답했다. ▲공용 층의 쓰레기통 확대(43.9%) ▲쓰레기통 OUT에 따른 OUT 대물림 현상 해결(21.9%) ▲쓰레기통 없음(11.4%)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쓰레기통 넘침 문제

설문 조사 결과 2 OUT 제도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거주 학생의 90% 이상이 ‘쓰레기통 넘침 문제 해결 안 됨’을 이유로 꼽았다. 이를 통해 쓰레기통 넘침 문제 해결이 급선무임을 알 수 있다. 응답자는 ▲쓰레기통 크기 확대(60.5%) ▲쓰레기통 아예 없음(11.4%) ▲쓰레기통 점검 주기 축소(7%)를 쓰레기통 넘침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쓰레기통 제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제11대 하우스연합회 최주

영 행정팀장(이하 최 행정팀장)은 “쓰레기통 제거로 발생하는 이득보다 학생이 받는 불편함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층별 쓰레기통을 제거하면 외부 쓰레기장까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라며 쓰레기통을 제거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혔다.

공용 층 쓰레기통 관련 문제

이동이 많은 1층이나 동아리방이 있는 2층, 휴게실이 있는 3층의 경우 쓰레기통이 계속 넘쳐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조사됐다. 응답자의 43%는 ‘공용 층 쓰레기통 크기 및 개수 확대’를 해결 방안으로 제안했다. 하우스는 공용 층의 쓰레기통 부피를 늘리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해 왔지만, 공용 층 쓰레기통은 여전히 넘치고 있다.

하지만 공용 공간이라는 점이 쓰레기통 문제의 근원은 아니다. 대학생활관 G하우스와 I하우스는 모두 공용 공간이 존재한다. 그러나 I하우스의 경우 매주 쓰레기통이 넘치고 있고, G하우스는 현재까지 단 한 번 쓰레기통이 제거되었다(2023.5.10 기준). 최 행정팀장은 공용 층의 쓰레기통 넘침 문제에 대해 “실제 파악 결과, 단순히 공용 공간이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취식 가능

여부, 학생들의 밀집도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하우스는 공용 층 쓰레기통 문제로 하우스 내부에서 꾸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쓰레기통 넘침으로 공용 층 거주 학생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신속한 근원 규명이 필요하다.

쓰레기통 OUT에 따른 OUT 대물림 현상

2 OUT 제도는 쓰레기통이 OUT 된 경우 외부 쓰레기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지만, 다른 층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때문에 쓰레기통 OUT이 층별로 대물림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하우스 측도 해당 사항을 인지하고 있지만, 명확한 해결책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최 행정팀장은 “OUT 대물림 현상으로 인한 피해보다 제도로부터 얻는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하우스 내부에서도 회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쓰레기통 이용 태도 역시 변화 필요해

청결한 대학생활관 이용을 위해 거주 학생의 쓰레기통 이용 태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최 행정팀장은 “청소 담당자가 쓰레기통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배달 음식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배달 음식 쓰레기는 외부 쓰레기통을 사용해달라는 청소 담당자 측의 당부부를 전했다.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쓰레기통 이용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놓았다. 한 응답자는 “책임과 연대 의식이 부족하다.”라고 꼬집었다. 모두의 변화를 통해 GIST 대학생활관의 쓰레기통 문제가 곧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김도은 수습기자
ehdms2718@gm.gist.ac.kr

직무대행 체제 장기화, 관찮은가

< 1면에서 이어짐 >

전임 총장의 급작스러운 사임과 신임 총장 선임 부결로 총장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으나, 그 충격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GIST는 과거 총장 공백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총장과 처장단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전임 총장의 소송전 여파로 2021년 당시 사실상 총장 부재 상태에 처했던 바가 있다. 덧붙여 사무국은 “총장 선임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구성원의 심

리적 부담은 훨씬 덜 할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총장직무대행의 권한은 원내 법무 부서의 범위 해석 결과에 따라 결정됐다. 인사의 경우 공석을 채우거나 임기를 연장하는 등 현상 유지 수준의 업무가 가능하다. 정책은 정형화된 업무와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재정의 경우 이미 체결된 계약에 관한 대금 지급과 같은 일상적인 채권 및 채무 업무와 편성된 예산 집행에 한정된다.

상기한 권한 밖의 업무에 대해서는 교무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처리한다. 교무위원회란 학부장과 연구소장, 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현재는 총장직무대행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총장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교무위원회는 평소보다 더 자주 진행되고 있다. 다만 권한 범위 밖의 업무 중 시급한 안건에 대해서는 교무위원회 상정을 통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 실제로 2024년 예산 편성은 현재 총장직무대행 체제에서 진행 중이다.

다만, 총장직무대행은 현행 유지 형태의 안건 처리가 주를 이루는 만큼 그 한계도 명확하다. 현재 GIST는 설립 30주년 비전 설정,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의한 재정 확보 등 처리해야 할 업무도 적지 않다.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하루빨리 정식 총장이 선임돼야 할 이유이다.

김혜리 기자
key030407@gm.gist.ac.kr

대학생활관 건조기 추가 배치한다

GIST 대학생활관 세탁실(이하 세탁실)은 이용자에 비해 부족한 건조기 수로 불만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학생팀은 설문조사를 통해 남학생 세탁실에 부족한 시설물의 추가 배치를 진행했다.

끊이지 않는 세탁실 사건사고

현재 GIST 대학생활관 세탁실 건조기 수는 2023년 5월 기준 구관(여 1대 / 남 4대) 신관(여 3대 / 남 4대)로, 이용자에 비해 건조기 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완전히 건조되기 전에 세탁물이 교체되거나 분실되는 등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세탁실 관련 사건은 피해 학생이 학생팀에 신고하면 CCTV 열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건조기 추가 배치 '동의한다.' 88.3%

〈지스트신문〉은 세탁실 건조기 추가 배치에 관한 의견을 모으고자 지난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대학생활관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는 총 114명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8.50%p다.

설문에 따르면, 세탁실을 사용하는 학생 중 건조기가 부족하다는 응답은 89.7%(84명)에 달했다. 한 학생은

“군대에서조차도 약 50명 정도의 인원엔 건조기 3대가 배정됐는데, 거의 400명에 가까운 인원엔 건조기 4대는 부족하다”라며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세탁실을 사용하는 학생 중 88.3%(83명)가 건조기 추가 배치에 동의했다. 그러나, 세탁실 공간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는 학생(15명)도 존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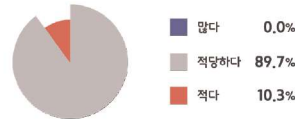
대학생활관 구관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72명 중 47.2%(34명)가, 대학생활관 신관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42명의 학생 중 97.6%(41명)가 신관 2층 세탁실을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이 결과는 구관 세탁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람이 몰리는 신관 세탁실에 건조기가 부족하다고 느낄 만한 근거가 된다. 구관에 거주하지만 신관 세탁실을 사용하는 이유로는 ▲구관 세탁실의 건조기 부족(18명) ▲신관 세탁실의 넓은 공간(13명) ▲구관 세탁실의 공개적인 위치(8명) 등이 제시됐다.

학생팀, "세탁실 시설 보완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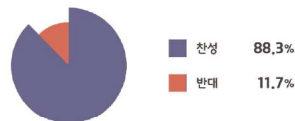
학생팀은 최근 세탁실 현장을 확인해 건조기 추가 설치 및 전기 공사 가능 여부와 설치 가능 대수를 검토했다. 시설운영팀의 협조로 전기 공사는 6월

대학생활관 세탁실 건조기 추가 배치에 관한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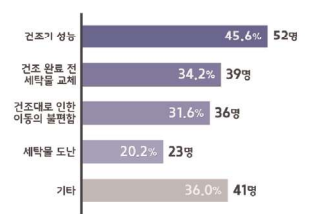
현재 건조기 개수에 대한 의견



건조기 추가 배치에 대한 의견



세탁실을 사용하면서 겪은 불편함



삼화 = 송혜근 기자

초에 진행됐다. 학생팀은 지난 5월 15일 하우스연합회(이하 하우스)를 통해 대학생활관 거주 남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건조기를 추가 배치했다. 학생팀은 남녀 성비를 고려해 남학생 세탁실에 건조기를 추가 배치했으며, 여자 세탁실에도 건조기 추가 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학생팀은 하우스를 통해 대학생활관 구관 1층 외부 복도에서 세탁실 안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과 내부 공간 분리가 부실하다는 학생 의견을 전달받았다. 세탁실 문에 불투명 시트

지를 추가로 부착하는 방안이 고려됐지만, 화재 발생 시 외부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안전상의 이유로 시행되지 않았다. 세탁실 내부 공간 분리 문제는 벽 설치 공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공사 도중 구관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불편이 우려돼 보류하고 있다. 학생팀은 “학생 다수가 벽 설치를 희망할 경우 공사 추진을 검토할 수 있다”라며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수현 수습기자
suhyeon_kim66@gm.gist.ac.kr

학습 방법 공유하는 멘토 멘티 프로그램

2022년 가을학기 시범사업에서 성공적으로 출발한 GIST 멘토링 프로그램(이하 멘토링) 1기에 이어, 2023년 봄 학기에 멘토링 2기가 운영됐다. 멘토링은 멘토가 멘티의 기초 및 전공과목 학습을 보완한다. 미래교육센터는 멘토링 2기 운영 이후 최종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프로그램 지속 여부와 운영 규모 및 방식 개편을 결정할 예정이다.

멘토링 프로그램 시작 계기는

멘토링 프로그램은 GIST 박래길 부총장(현 총장직무대행)의 제안을 통해 시작됐다. 박 부총장은 타 대학(POSTECH 등)의 멘토링 선례와 그 효과를 인지하고, GIST 학생의 학습을 돕고자 소규모 시범사업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POSTECH에서는 대학 수학 및 과학 기초과목 보완을 목적으로 ‘멘토 제도’를 운영한다. 학사 3학년 이상 멘토 학생과 학사 1학년 멘티 학생 3~4명이 팀을 꾸려 학기 단위 규모로 진행된다. 지난 기의 좋은 결과와 평가(매우 긍정

64.7%, 긍정 30.4%)를 받으며 출발한 GIST 멘토링 프로그램은 규모를 확대해 멘토링 2기를 운영 중이다.

멘토·멘티 선발 과정

멘토 지원 대상은 멘티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2~4학년 재학생이다. 기초과목의 경우 해당 교과목의 성적이 B+ 이상으로, 멘티의 학습을 이끌어 줄 수 있어야 한다. 멘티는 기초과목 이수 및 원활한 대학 생활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대학 1학년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멘토와 멘티는 성적 증명서와 함께 제출된 멘토 또는 멘티 신청서를 기반으로 ▲지원 동기 ▲멘토·멘티 적합성 ▲참여 의지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한다. 신청 인원이 선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선발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선발하기도 한다.

멘토링 프로그램 활동 방법

멘토링 2기는 미래교육센터 흥인덕 선생님의 지도와 1기 베스트 멘토였던 최정은(전컴, 21) 조교의 도움을 받아

운영됐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멘토 12명과 멘티 27명이 참여했다. 멘토링 과목은 ▲미적분학과 응용 ▲다변수해석학과 응용 ▲선형대수학과 응용 ▲일반물리학과 ▲일반화학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대학 수학 및 과학 기초과목이다. 각 팀에는 신청한 과목을 바탕으로 멘토 한 명당 최대 3명의 멘티가 배정됐다. 한국 학생으로만 구성된 1기와 달리 이번 기는 외국인 학생도 멘티와 멘토로 참여했다. 외국인 학생으로는 멘토에 2명, 멘티에 3명이 있다.

멘토링 2기는 지난 3월 오리엔테이션과 첫 개별 만남을 시작으로 지난 6월 9일까지 운영됐다. 모든 팀은 한 달에 한 번 학습 사진과 학습 내용 등이 포함된 활동일지를 제출해야 한다. 멘토링 수업은 화당 2시간씩 매월 2~4회 이루어진다.

멘토링에 참여하는 멘토는 ‘멘토 장학금’을 받는다. 멘티가 2명 이하이면 월 25만 원, 3명이면 월 30만 원이 멘토에게 지급된다. 활동이 불성실한 경우 장학금 지급이 중단된다.

멘토링 프로그램에는 최우수 참여자

를 선발하기 위한 ‘베스트 멘토·멘티’ 제도가 있다. 멘토링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베스트 멘토는 상금 10만 원을, 베스트 멘티는 상장을 지급한다. 베스트 멘토·멘티는 멘토링 보고서 제출과 두 차례 열리는 ‘멘토·멘티 데이’에서의 발표로 선정한다. 멘토링 횟수가 3회 이상이면 가산점이 부여된다. 멘토·멘티 데이 우수 발표자는 공정성을 위해 기명투표로 정한다.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성과의 중간 점검과 다른 팀의 학습법 등을 공유하기 위한 ‘멘토·멘티 데이’는 프로그램 2개월 차에 2회 개최됐다. 오리엔테이션 행사에서 2기 멘토링 참여자를 위해 1기 베스트 멘토·멘티인 최정은, 박현영(전컴, 22) 학생의 학습법 사례발표가 있었다. 한편, 멘토링 2기 참여자는 1기 최우수 활동일지와 학습법 발표 자료를 공유받아 활동일지와 멘토·멘티 데이 발표자료 작성법을 익혔다.

〈다음 면으로 이어짐〉

제1회 <GDSC X GIST 해커톤> 개최

'Developer' 넘어 'Problem Solver'로

구글 소속 개발자 동아리 Google Developer Student Clubs(이하 "GDSC")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제1회 <GDSC X GIST 해커톤>을 개최했다. 행사는 4월 29일과 30일 이틀간 GIST AI 대학원에서 진행됐고, GIST 학생 49명이 12개의 팀으로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해커톤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제한 시간 안에 개발자와 기획자 등이 팀을 이뤄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행사를 말한다. 이번 해커톤은 GIST에서 학생 주도로 열린 행사인 만큼, 알차고 유익한 활동들로 구성됐다. 대회 첫날에는 GIST 기전공학부를 졸업한 류석문 쏘카 CTO(최고 기술 책임자)가 <프로그래머로 산다는 것>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AWS(Amazon Web Services)와 스타트업 그룹바이에서 초청된 연사가 각각 소프트웨어, 창업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우울과 외로움', '지역사회의 문제', '경제적 불평등', '인구 중

격과 세대 격차' 등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개발에 집중했다. 사회 문제의 세부적인 주제는 기초교육학부 교수의 자문을 통해 선정됐다. 이틀간의 경험을 통해, 참가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넘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Problem Solver"로 성장했다.

행사 개최까지의 여정

GDSC를 이끄는 리더(Lead) 이주찬(전컴, 19) 학생은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된 이유에 대해, "GIST의 연구 꿈나무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실제로 해결해 보는 경험을 주고 싶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학교 친구들의 뛰어난 능력을 자랑하고 싶었다. 광주라는 지리적 특성상 개발 관련 행사를 접할 기회가 서울보다 부족하다. 이 점이 아쉬워 이번 행사를 열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이 학생은 "연구가 실험실 안에서만 그치지 않고, 세상에 나와 사회 문제에 이바지하게 되면 그 가치는 더욱 올라간다"라며 해커톤 주제를 "사회 문제 해



학생들이 팀별로 모여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다

결을 위한 서비스 개발"로 선정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번 행사가 학생들의 연구 경험을 세상에 보여주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기대를 드러냈다.

이 학생은 행사 기획 과정에서 운 좋게도 다양한 기업과 학교 부서들의 후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조직들의 이해관계를 맞추며 협업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으며 고충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지속돼 학생들이 사회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이 학생의 바람이다.

참가자에게 성장의 기회로

다음으로 해커톤에 참여해 대학장상(1등 상)을 수상한 '서포포'팀의 심수연(전컴, 21), 이정우(전컴, 22) 학생의 의견을 들어봤다. 서포포 팀은 웹 서비스 '오라기'를 만들어 배포에 성공했다. 오라기는 기술의 발달로 대면 만남이 위축되며 발생한 우울과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연쇄 반응형 기록장이다. 해당 서비스는 일일 감정 기록과 무작위로 수신한 타인의 감정에 답하며 건강한 소통에 주기적으로 노출되도록 돕는다.

심 학생은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이디어를 충분히 피드백하며 공고히 했기 때문에,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고 했다. 서포포 팀은 행사를 마친 후 회고록을 작성하며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을 팀원끼리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학생은 이번 해커톤 행사를 자기 개발의 기회로 활용했다. 심 학생은 "짧은 기간 안에 자신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보완할 수 있는 경험은 흔치 않다. 해커톤은 그런 경험을 제공해 주는 행사다. 또한 행사 주제가 학생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정우 학생은 "해커톤에 참가해 다른 개발자들과 좋은 인연을 만들고, 영감과 지혜를 얻고 싶었다"라며 개발자로서 한 단계 성장하고 싶은 욕구를 드러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이번 해커톤 행사는 참가 학생의 개발 능력을 높이고, 나아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행사인 만큼 모두에게 더욱 큰 보람이 됐을 것이다.

이재희 기자
jhlee.ug@gm.gist.ac.kr



해커톤 참가 학생이 발표를 하고 있다.

멘토링 참여 학생, 전반적으로 만족해

<3면에서 이어짐>

2차 멘토·멘티 데이에서는 다른 팀의 학습법 벤치마킹과 피드백, 중간고사 기간까지 활동한 내용을 반영한 발표가 진행됐다. 행사에 모인 멘토와 멘티는 팀별로 수업 진행 방식을 설명했다. 어떤 팀은 중간고사 공부 매뉴얼과 핵심 요약정리, 선배의 족보 자료, 다른 팀의 학습법 피드백을 기반으로 한 수업 방식을 보여줬다. 다른 학교의 시험 문제를 함께 풀어보며 풀이 방식의 차이점을 통해 본인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연습하는 팀도 있었다. 과목을 볼

문하고 많은 팀이 열정적으로 예습과 복습 및 개념 학습과 문제 풀이에 임했다. 일정을 스스로 설계하고 준수하며 체계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멘토링 참여 학생 만족도 높아

<지스트신문>은 멘토링 프로그램 참가 학생을 대상으로 2023년 5월 2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다. 전체 참가자 39명 중 멘토 7명, 멘티 3명 총 10명이 응답했다.

멘토링 프로그램 참가 학생은 멘토링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에 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응답자의 70% 이상이 멘토링 프로그램이 멘티의 학업 능력 향상과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이 됐느냐는 물음에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현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멘토 1명 당 멘티 3명 이내로 팀을 구성하는 방식, 멘토링 프로그램 재참여 의사, 멘토와 재회를 희망하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답변이 과반수 이상이었다.

미래교육센터는 멘토링 2기 활동 종료 이후, 멘토링 참가자를 대상으로 공식적인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는 경영진에 전달돼 향후 프로그램 지속 여부와 운영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규서 수습기자
leegyuseo@gm.gist.ac.kr

'오일팔 아직 안 끝났어요'...우리 곁에 숨 쉬는 5월의 광주

1980년 5월, 열흘에 걸쳐 일어난 5·18민주화운동이 2023년 올해로써 43주년을 맞이했다. 5·18민주화운동은 1950년 6.25 전쟁 발발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정치적 비극이다. 동시에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끈 주역으로서 그 향기와 그림자를 함께 드러낸다.

지난 5월 18일, 5·18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기념식이 열렸다. 전날인 5월 17일에는 광주광역시 금남로에서 '우리는 끝까지 정의파다'라는 주제 아래 민주 평화 대행진과 5·18 전야제가 진행됐다. 1980년 5월의 상처를 기억하고 당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열흘간 이루어진 5·18민주화운동은 반란 군부의 비상식적 진압에 맞서 민주화를 요구한 의로운 항쟁이다. 시민들이 스스로 무장하고 불법적인 군인 집단에 저항한 사건은 한국 전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참담했던 이 비극의 피해 규모는 아직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 따르면 항쟁 열흘 동안 최소 163명의 민간인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또한 계엄 공수가 휘두른 대검 및 곤봉에 의해 각종 부상을 입은 이들을 포함하면 최소 3천여 명이 이상이 집계된다. 하지만 계엄군의 추가 보복을 우려해 부상을 감추기도 했기에, 전체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고문이나 부상 후유증으로 트라우마를 겪다 사망한 시민도 수백 명에 달한다.

광주시민이 보여준 항쟁의 장렬한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는 원천이 됐다. 하지만 5·18의 역사를 철저히 은폐하고 왜곡하려는 흐름이 5·18 당시부터 지속됐다. 광주시민을 폭도로 매도하고, 계엄군의 학살행위를 군의 자위권 발동이라며 거짓 논리를 내세웠다. 이외에도 북한군 침투설과 같은 가짜 뉴스도 확산됐다.

이러한 왜곡과 편향은 2018년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과 2020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진상규명 활동으로 천천히 회복되고 있다. <지스트신문>은 5·18 유공자와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을 만나 그날의 오일 정신, 그리고 그 중심이 된 학생운동이 가지는 함의를 취재했다.

5·18 증언

(증언자: 5·18 구속 부상자회 박동만 씨)

1980년 4월부터 전남대학교(이하 전남대) 총학생회에서 나온 홍보물을 인



김현경의 일기장(광주동산초등학교 6학년, 1980)

쇄해 준 혐의로 1980년 6월 구속돼 같은 해 10월 24일 석방됐다. 당시만 해도 인쇄술이 널리 보급되지 않아 학생들은 유인물을 직접 등사기로 제작하거나 인쇄소에 맡기는 형편이었다. 4월부터 전국적으로 민주화 바람이 불자, 전남대학교 학생들도 학내집회를 벌이며 유인물 인쇄를 부탁했다. 주로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 섭외부장이었던 이창조 씨가 유인물을 들고 찾아왔다. 유인물에는 독재 반대와 학내 민주화를 요구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당시 계엄령이 선포됐던 터라 모든 인쇄물은 보안사에 사전검열을 맡아야 했다. 하지만 전남대 학생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민주화를 열망하며 유인물을 뿌리고 곳곳에 알리고 하는데, 이를 정부에 당연히 알릴 수 없었다. 그렇게 1980년 5월 14일까지 전남대 총학생회에서 가져온 인쇄물은 모두 인쇄하고 나니,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에는 곳곳에서 시위가 전개됐고, 5월 21일 집단 발포 때에는 금남로 일대가 피범벅이 되었다. 그때는 공포감이 너무 커서 단지 주위로부터 소식만 들으며 27일까지 인쇄소 문을 닫고 숨어 있었다.

이후 1980년 6월 6일 다시 인쇄소를 운영하던 와중, 광주 경찰서 형사가 찾아와 전남대학교 섭외부장을 만났다고 물어보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프차에 강제모 타시 끌려 들어간 곳은 광주 상무대였다. 형사들은 도착하자마자 이유 없이 무수한 구타를 시작했다. 나뿐만 아니라 상무대 영창 곳곳에서 각종 욕설과 구타 소리, 텅골고 있는 사람들 비명이 들렸다. 한동안 두드려 패고 난 뒤 조사를 시작하자, 인쇄를 해준 모든 일을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실제로 내가 했던 인쇄 작업은 생계를 위한 것으로, 폭동 활동에 가담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형사들은 내

란음도 가담에 대한 자백을 강요했다. 결국, 조서에는 돈을 하나도 받지 않고 유인물을 인쇄했으며 이는 운동의 한 부분으로 참여했기에 모든 일에 책임이 있다고 기록했다.

그 이후에도 보안대에서는 전남대 총학생회 섭외부장과의 접점을 물으며 조서 작성과 구타가 반복됐다. 2달 동안 그들은 우리를 북한 간첩단으로 오명을 씌우며 자백을 강요했고, 요구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구타한 후 감옥에 집어넣었다. 36명이 정원인 공간에 97명이 들어가 함께 생활했다. 7여명 남술 막힌 채 살다가 간혹 나오면 두들겨 맞는 과정에서 여러 번 졸도했다. 당시 군인들은 나를 끌고 가 국군광주통합 병원에 집어넣었는데, 병원 신세는 상무대에 비해 천국과도 같았다.

그렇게 한 달여 동안 치료를 받던 중 내란음모죄와 계엄법 위반 죄목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요, 정치활동 금지"형을 받았다. 다행히 1980년 10월 24일 무죄판결로 출소해 회복하긴 했지만, 이후에도 형사의 미행을 받으며 그야말로 범죄자 신세가 됐다.

5·18민주화운동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시민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박동만: 나는 아직도 1980년도 5·18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며 당황을 금치 못한다. 몇 년 전, 5·18자유공원(옛 상무대 법정 영칭)에 방문해 1980년 당시 투옥됐던 감옥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로잡혀 이제껏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등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지도 못했다.

앞으로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날, 무너진 도시의 상흔은 광주시민 모두에게 앞으로도 여전히 있을 것이다. 소설 '소년이 온다'에 "당신이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

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있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문구가 왜 나왔는지, 지금의 평범한 삶이 어디서 왔는지 묻고 싶다. 그 이면에는 광주와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끝까지 지킨 광주시민들의 거룩한 헌신과 희생이 있었음을 절대 잊지 않아 줬으면 한다.

홍인화(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중심에는 학생과 청소년이 있었다. 당시 '이러다 광주의 젊은 자식들이 다 죽는다'라며 시민군이 등장했다. '학생'이라는 시기는 가장 역사의식이 있고 들끓는 정의감과 의협심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오늘날에도 청소년들은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 늘 의문을 제기한다. 때로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런 특성이 나라를 사랑하는 공정성과 맞물렸을 때 이기적인 것이 먼저는 아니었다. 그렇기에 정말로 절차상 공정하지 판단하고, 부당한 현실에 거리낌 없이 달려들어 싸우는 그들의 모습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최근에 광주를 방문한 전우원 씨도 MZ세대의 한 흐름으로서 5·18민주화운동의 공정성을 파악하고 집안의 베일을 뚫고 나온 올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980년 5월의 광주는 그야말로 생명을 나눈 절대 공동체를 경험했다. 시민들은 서로 간의 공의, 대한민국의 공의를 위해 몸소 자기의 것을 내놨다. 민주주의의 기초라 불리는 5·18민주화운동이 물려주는 정신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내 것을 베푸는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다. 더 나아가 5·18 유공자분들이 그토록 바랐던 오늘날의 평범한 민주주의에 감사하고 1980년 5월의 공기에 익숙해지길 기대한다.

5·18민주화운동에서 광주시민은 계엄군에게는 꺾이지 않는 시민군이었으며, 부상자에게는 천사 같은 간호사이자 동지였다. 당시 광주시민은 유례없는 공동체 정신과, 결집성 및 저항 정신을 보여줬고, 이는 오늘날의 '오일 정신'으로 이어졌다.

한강의 '소년이 온다'에는 '당신을 잃은 뒤 우리들의 시간은 저녁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집과 거리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두워지지, 다시 밝아지지 않는 저녁 속에서 우리들은 밥을 먹고 걸음을 걷고 잠을 잡니다.'라는 구절이 있다. 5·18민주화운동의 회복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날의 상흔이 온전히 치유될 때까지 그들도, 우리도, 나라도, 역사도 그날을 잊어서는 안 된다.

종합

2년마다 돌아오는 예술축제, 광주비엔날레 개최

2년마다 열리는 세계적인 예술축제, 2023 광주비엔날레가 4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를 주제로 '광주비엔날레전시관'을 비롯한 광주 시내 전시관 5곳에서 펼쳐진다.

지난 4월부터 개최 중인 14회 광주비엔날레는 총 79명의 작가가 참가해 300여 점의 현대미술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비엔날레는 이탈리아어로 '2년마다'라는 의미로 2년마다 열리는 전시회를 말한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이다. '물은 가장 유약하지만, 공력(功力)이 아무리 강한 것이라도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다'라는 노자의 '도덕경'의 '유약어수에서 차용했다.

비엔날레 전시회는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국립광주박물관', '부각사',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예술공간집'에서 열린다. 그중 핵심 전시관인 '광주비엔날레전시관'은 소주제에 따라 나뉜 5관을 순서대로 관람하는 구조다. 각 관에서는 부속과 전통, 저항과 연대, 그리고 환경 등 중심 주제인 물과 관련된 독립적인 주제와 작품을 선보인다.

광주비엔날레는 '파빌리온 프로젝트'와 함께 진행되어 5개의 본 전시관 외에서도 다양한 예술작품을 즐길 수 있다. 파빌리온이란 전시장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임시로 만든 건물을 의미한다. 비엔



엄정순 작가의 '초록으로 걷다'

날레 파빌리온 프로젝트는 캐나다, 중국, 프랑스 등을 포함한 총 9개의 나라가 참여해 서로 다른 전시관에서 각 나라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비엔날레 전시작인 엄정순 작가의 '초록으로 걷다'는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느낀 코끼리를 재해석해 대형화한 몇 개의 조형물 중 하나다. 조형물은 편견과 결핍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 본 작품들은 관객이 손으로 직접 만지며 관람할 수 있다. 엄정순 작가는 전시 주제에 가장 적합한 작가에게 수여하는 광주비엔날레 박서보 예술상을 받았다.

지난 5월 15일 GIST의 동아리 '무카'는 GIST 학생들에게 비엔날레 방문 기회를 제공했다. 문화생활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학생 간 새로운 만남을 만들고자



유마 타루 작가의 '천과 같은 허'

기획된 이번 행사에는 학생 20명이 함께 했다. 광주비엔날레전시관을 방문해 도슨트의 안내를 받아 관람하고, 감상평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수의 학생은 이번 전시회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학생은 "시각적으로 강한 인상을 받은 경험이였다"라며 감상평을 남겼다. 또한 행사 참여 인원 다수가 파빌리온 프로젝트 등 다른 전시관에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광주비엔날레는 4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이어진다. GIST에서 광주비엔날레전시관까지 거리는 차로 20분, 버스로 1시간 정도다. 주 전시관인 '광주비엔날레전시관'의 입장료는 15,000원이며 본 전시관을 제외한 모든 전시관의 입장료는 무료다.

전시 관람 시 작품 옆에 있는 QR코드를 인식하면 작품의 주제와 제작 배경을 알 수 있다.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면 전문 해설사인 도슨트의 안내를 받으며 관람하는 방법도 있다.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인원만으로 예약하면 도슨트의 해설을 들을 수 있다.

오는 9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는 제 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개최된다. 이번 비엔날레 전시가 만족스러웠거나 참가하지 못해 아쉽다고 느낀다면 2023년 하반기에 진행되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방문을 추천한다.

신병호 수습기자
byeongho@gm.gist.ac.kr

총학생회, KENTECH와 벤치마킹 실시해

지난 5월 20일, GIST에서 KENTECH와의 총학생회 벤치마킹 행사가 열렸다. 본 행사는 14년 동안 운영된 GIST 총학생회 이래 다른 학교와의 첫 벤치마킹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각 학교의 자치회 또는 부서별 대표자는 업무 내용을 소개하고, 상대 학교로부터 질의를 받았다.

행사는 크게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GIST 총학생회가 발표하고, KENTECH 총학생회로부터 질의를 받았다. 반대로, 2부에서는 KENTECH 측의 발표 이후 GIST 측이 질의를 던졌다.

1부는 양태규(소재, 22) GIST 부총학생회장의 발표로 막을 올렸다. 양 부총학생회장은 GIST 총학생회 운영 구조 및 의결 진행 방식을 KENTECH 총학생회와 공유했다. 또한 각 자치회(▲집행위원회 ▲동아리연합회 ▲문화행사위원회 ▲하우스연합회)는 문서 관리, 선발 과정 등의 상세 업무를 소개했다. 자치회 발표자는 각 자치회가 추진한 사업을 예시로 들며 사업 진행 노하우를 전달했다. 이후 자치회를 구성하는

부서별 발표가 진행됐다. 마찬가지로 각 부서 대표자는 진행 사업 예시를 보여주며 부서당 배정된 인원과 업무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다.

2부는 장현규 KENTECH 총학생회장의 KENTECH 총학생회 소개로 시작했다. 장 총학생회장의 발표 후에는 마찬가지로 KENTECH 총학생회를 구성하는 자치회(▲행사기획국 ▲정책복지국 ▲홍보 디자인국 ▲집행지원국)의 대표가 업무 내용을 상세히 공유했다.

GIST와 KENTECH의 차이점

두 학교 총학생회의 운영 구조는 크게 조직 형태와 학생회비 유무에서 달랐다. 조직 형태와 학생회비 유무는 학교 운영 사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규 조직으로 운영되는 GIST 총학생회와 달리, KENTECH에서는 TF가 일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TF는 특정 업무를 해결하거나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가를 선발해 임시로 편성한 조직을 뜻한다. 작년에 개교한 KENTECH는 다른 학교에 비해 상대

적으로 업무 수행이 힘든 상황이다. 총학생회가 구성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KENTECH 총학생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TF를 구축해 운영에 안정성을 더했다.

KENTECH 총학생회는 학생회비가 없는 GIST와 달리 주기적으로 학생회비를 걷는다. 학생회비는 사업 운영 자금과 회비 납부자 혜택으로 사용된다. 2023년 KENTECH에서 학생회비 납부율은 약 5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회비를 걷는 KENTECH는 GIST보다 예산 부담이 덜하다. KENTECH 총학생회가 추진한 개강 파티, 종강파티 등 행사는 모두 학생회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됐다.

다른 학교 사업에서 영감 얻어

(지스트신문)은 벤치마킹 행사에 참여한 김민정(환경, 22) 집행위원회 협력국장과 KENTECH 최선우(에너지공학과, 22) 정책복지국장의 소감을 인터뷰했다.

김민정: GIST 총학생회 운영에 관한

외부 피드백을 듣고자 이 행사를 추진했다. 같은 이공계 특성화대학이면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KENTECH를 첫 벤치마킹 대상 학교로 선정했다. GIST 총학생회가 주제적으로 계획한 행사에 더욱 의미가 있다. 다만, 행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아쉬웠다. 다음 기회가 있다면, 시간 손실을 줄이고 두 학교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하겠다.

최선우: 집행위원회가 발표했다던 내용 중 청원 홈페이지 관리 시스템이 인상 깊었다. KENTECH 총학생회는 에브리타임을 이용해 청원 사이트를 제작하고자 했지만, 품질의 한계가 드러나 아쉬웠다. 발표에서 소개한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을 활용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GIST 총학생회는 더 나은 조직 운영을 위해 벤치마킹 행사가 앞으로도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원제 기자
wonjeekim@gm.gist.ac.kr

Dwindling appointment of the president

On April 5, a board meeting was held to appoint the 9th president of GIST, but it was rejected because no candidate met the criteria for more than a majority of the votes. The presidential candidate recommendation committee (the general committee) has narrowed the number of presidential candidates to three through a public offering and various reviews. It will be finally appointed through the board of directors. GIST met with Lee Seung-Jae, head of the GIST Board of Directors' Secretariat (referred to as the secretariat), and asked about the process of appointing the new president and the president's prolonged absence.

First, the general committee will convene to select the final candidates through document and face-to-face screening. Currently, the general committee consists of ▲ two directors belonging to the board of directors, ▲ one external person recommended by the chairman, ▲ one ex officio director of the government, and ▲ one professor recommended by the faculty. The government will then conduct personnel verification for the final

candidate for about a month. A candidate who holds a board of directors meeting based on the evaluation of the general election, verification of government personnel, and the announcement of the final candidate's opinion will be appointed president. The new president will begin his term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and approval usually takes place on or the next day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 new president will be appointed as early as the end of June.

The new president's term is expected to begin in late June or early July. Nine people, including two insiders, applied for the public offering, which took place from April 21 to May 11. On May 16 and 23, the general committee selected three final candidates through document and face-to-face screening, respectively. Moon Seung-hyun, former president of GIST; Park Hyun-Wook, former vice president of the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and Lim Ki-Chul, former president of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Planning and

Evaluation (KIST), were among the final candidates. The new president will take office in July at the latest because personnel verification and voting by the board of directors take about a month.

The secretariat expressed a firm policy on the president's appointment, saying, "We are not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being rejected again." In this contest, candidates were actively sought and recruited not to repeat the rejection of the appointment. As a result, an application rate similar to the initial public offering (10 people) was achieved, and the appointment schedule is also proceeding smoothly.

Is the acting president's system prolonged?

The president's absence has been prolonged due to the sudden resignation of the former president and the rejection of the appointment of the new president, but the impact is not significant.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president's absence in the past, GIST is operated mainly by the vice chancellor and the head of the department. In the aftermath of the former president's lawsuit, he was virtually absent in 2021.

In addition, the secretariat dismissed concerns, saying, "As the process of appointing the president is proceeding normally, the psychological burden on the members will be much less."

In order to minimize the gap in the presidency, the school affairs committee meets more often than usual. However, urgent issues outside the scope of their authority will be decid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school affairs committee. The 2024 budget is currently underway under the acting president system.

However, the limitations of the acting president are evident as the current maintenance type of agenda is mainly handled. Currently, GIST has many tasks to deal with, such as setting a vision for the 30th anniversary of its establishment and securing finances due to the lifting of the designation of public institutions. This is why an official president should be appointed as soon as possible when it is difficult to promote new projects.

Reporter Eric Kim
(key030407@gm.gist.ac.kr)
(translation: Sangwoo Kim)

Additional deployment of a dryer in the dormitory

The laundry room of the GIST University Dormitory is constantly complaining about the number of dryers that are insufficient compared to users. The student team confirmed the laundry room site and said it would proceed with the additional placement of facilities lacking in the boys' laundry room through a later survey.

University Dormitory Laundry Complaints Continuously Raised

Currently, the number of dryers in the laundry room of GIST University Living Room is S, T dormitory (three women's/four men's) and G, I dormitory (one women's/four men's), which is insufficient compared to users. As a result, laundry room-related incidents such as laundry replacement and theft continue to occur before drying is completed.

Laundry dryer

additional arrangement 'Agree' 88.3%
The GIST NEWS surveyed university

dormitory residents from May 15 to 18 to gather opinions on the additional deployment of laundry dryers. The total number of respondents is 114, and the sampling error is $\pm 8.50\%$ at a 95% confidence level.

According to the survey, 89.7% (84) of students who use the laundry room in the dormitory said they were lacking. In response, one student said, "Even in Korea's military, about 50 people were assigned three dryers, but nearly 400 people and four dryers were not enough."

88.3% (83 students) of students who use the living room laundry room agreed to the additional deployment of dryers. However, there were also 15 students who opposed the further deployment of dryers due to the lack of laundry room space.

Of the 42 students who said they lived in the new building, 97.6% (41 students) and 47.2% (34 students) of 72 who said they lived in the G, I dormitory said they used the laundry room on the

second floor of the S, T dormitory. This result is a basis for feeling that the dryer is insufficient in the relatively crowded new pipe compared to the old pipe laundry room. The reasons for living in the old building but using the latest building laundry room were ▲ the lack of dryers in the laundry room on the first floor of the G, I dormitory (18 people) ▲ and ample space in the new building laundry room (13 people) ▲ location of the open G, I dormitory laundry room (8 people).

Student Team "Will Improve Laundry Facilities"

With the cooperation of the facility operation team, electricity construction was planned from late June to early July. The student team announced on May 15 that it would supplement the laundry room based on the results of a survey of male students living in the dormitory through the GIST House Association.

In addition, the student team received

opinions from students through the GIST House Association last year that they could check the inside of the laundry room in the hallway outside the first floor of the G, I dormitory and that the separation of the interior space was poor. However, if an additional opaque sheet of the sheet is attached to the laundry room door, the problem can be solved, but it was rejected for safety reasons. In addition, the problem of separating the space inside the laundry room can be solved through wall installation work. However, the laundry room was not available during the construction period, so it is withheld due to concerns over inconvenience to students living in the old building. The student team expressed its willingness to improve, saying, "If many students want to install the wall, we can consider promoting the construction."

Reporter Suhyeon Kim
(suhyeon_kim66@gm.gist.ac.kr)
(translation: Sangwoo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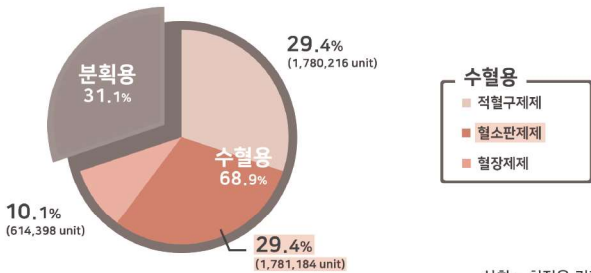
오피니언

독자기고

혈소판혈장 헌혈,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2022년 혈액공급 실적

(출처 : 2022년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통계연보)



십화 = 최정은 기자

2023년 4월 28일, 50번째 헌혈을 마치고 급장을 받았다. 7년 동안 헌혈의 집과 헌혈 버스를 들락거리며 여러 일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2019년 10월쯤 헌혈의 집에서 혈소판 헌혈을 하면서 간호사님께 들은 말이다.

“요즘 B형 혈소판이 부족합니다. 가능하다면 혈소판 헌혈에 자주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방문한 날이 혈소판이 유독 부족한 시기였는지, 목소리에 간절함이 느껴졌다. 내가 지금까지 헌혈을 지속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헌혈 참여도가 올라가 적혈구제제는 적절히 확보되는 편이지만, 혈소판제제는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

혈소판혈장 헌혈은 전혈보다 홍보가 부족한 탓인지, 참여는커녕 존재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혈소판혈장 헌

혈은 주로 매체를 통한 공개적인 방식보다는 간호사가 헌혈자에게 직접 권하는 방식으로 홍보하는지라 더욱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헌혈, 그중에서도 혈소판혈장 헌혈을 알려려고 한다. 혈소판혈장 헌혈은 성분헌혈의 일종이며, 혈소판과 혈장을 채혈하고 나머지는 돌려주는 방식이다. 요즘에는 성분 채혈기의 성능이 좋아져 혈소판 단독 헌혈은 드물고 남성은 웬만하면 혈장까지 같이 뽑는 혈소판혈장 헌혈로 시행한다.

혈소판혈장 헌혈에서는 전혈에서 얻는 혈소판의 6배를 얻을 수 있어 혈소판제제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 혈소판은 백혈병 환자 등에게 꼭 필요하며, 혈소판제제는 2022년 기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혈용 혈액제제다. 그리고 혈소판은 적혈구와 달리 유통기한도 5일로 짧아서 저장도 어려운 만큼 꾸준한 헌혈이 필요하다.

하지만 혈소판혈장 헌혈은 까다로운



헌혈을 마친 객재원 학우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

조건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 체중 조건은 50kg 이상이지만 보통 60kg 이상이 권장되고, 그 외 혈액색소와 혈소판 수치, 혈관 상태 등 여러 조건이 있다. 추가로 여성은 임신 경력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그리고 40분~1시간가량 바늘을 꽂고 있어야 하고 헌혈버스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불편함도 있어 참여율이 낮다.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혈소판혈장 헌혈 참여를 권하는 이유는,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도 아직 젊은 학생들은 가능한 확률이 비교적 높기 때문이다. 백혈병 환자에게는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이 희망이다. 비록 전혈보다 많은 시간을 쓰고 헌혈의집까지 직접 가야 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분명히 그럴 가치는 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작년 7월에 학교 주변 LC타워에 헌혈의 집 첨단센터가 새로 생겨 헌혈의 집 방문이 아주 편리해졌다.

혈소판혈장 헌혈은 헌혈자 개인에게

도 전혈보다 좋은 점이 있다. 다음 헌혈까지 2달을 기다려야 하는 전혈과 달리, 혈소판혈장 헌혈은 2주만 기다리면 된다. 공군병 지원 등 헌혈 횟수에 따라 가산점이 붙는 곳에서는 확실히 유리하다. 그리고 헌혈 과정이 힘든 만큼 기념품도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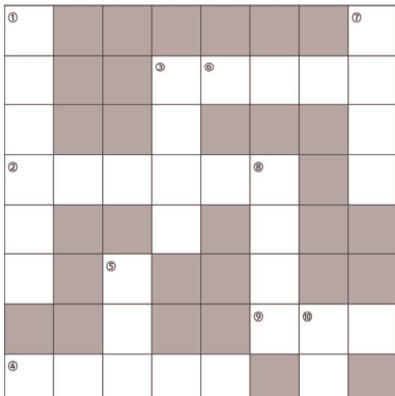
헌혈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가장 큰 혜택인 혈액검사도 전혈과 똑같이 제공된다. ▲ALT(간수치) ▲B형 간염 ▲C형 간염 ▲인체T림프영양성바이러스 ▲매독 ▲총단백 ▲비에기항체 ▲혈액형 아형 검사 결과가 제공되는데, 비에기항체와 혈액형 아형을 제외하면 혈액검사 결과는 헌혈자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러한 검사는 보건소에서 따로 하려면 2만 원 가까운 비용이 든다. 헌혈자에게는 이 모든 비용이 무료이다.

헌혈은 남을 돕는 가장 쉬운 방법의 하나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자긍심도 가질 수 있다. 혈소판혈장 헌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LC타워 주변에 놀러 갈 때 헌혈도 같이하고 오는 건 어떨까. 레드커넥트 앱을 깔아 헌혈을 예약해 보자.



객재원 (물리, 19)

십자말풀이



지난호 정답



가로

- ② 광주비엔날레 전시장 중 한 곳의 이름. '호랑가시나무 00000'
- ④ KENTECH 총학생회를 구성하는 자치회 중 하나로, 행사를 담당한다.
- ⑥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이 풀이지만, 그 아무리 강한 것이라도 물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뜻으로,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구절이다.
- ⑩ 최고 기술 책임자

세로

- ①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의 명칭.
- ③ 전시장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임시로 만든 건물
- ⑤ 기술의 발달로 대면 만남이 위축되며 발생한 우울과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연쇄 반응형 기록장
- ⑦ 영양학적으로 뇌를 움직이는 유일한 에너지원. 아침식사로 이것을 눈에 공급하면 공부에 도움을 준다.
- ⑧ 구글 소속 개발자 동아리. 지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해커톤을 개최했다.
- ⑩ 특정 업무 해결 또는 사업 목표를 위해서 전문가를 선발해 임시로 편성한 조직.

사

■사임
정기자 한지민

령



지스트신문

2016년 4월 11일 창간

발행인 박래길

주간 홍성민 편집장 김성우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LG도서관 102호 GIST신문사

전화 062-715-5810

이메일 editor@gist.ac.kr 웹사이트 gistnews.co.kr

페이스북 facebook.com/Gistsinmoon

인스타그램 @gistnews_official